



홍국평 | 연세대

1. 들어가는 말

하나님 이름 사용 원칙은 구약성서의 문서가설(Documentary Hypothesis)의 핵심 기준이었다. 신명 사용 원칙은 오경 문서가설의 시초로 여겨지는 아스트뤽(J. Astruc)의 가설의 토대였고,¹⁾ 이후 자료비평을 확립한 벨하우젠(J. Wellhausen)도 이 원칙을 계승하였다.²⁾ 하지만 최근 자료비평을 중심으로 한 비평적 합의가 무너지고 거센 도전에 직면

1) 이를테면, 문서가설을 촉발한 도화선 중 하나였던 아스트뤽의 연구는 신명 사용을 기준으로 '엘로힘' 본문('A')과 '야웨' 본문('B')을 구분하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Jean Astruc, *Conjectures sur les memoires originaux: dont il paroît que Moyse s'est servi pour composer le livre de la Genese* (A Bruxelles: Chez Fricx, 1753).

2) Julius Wellhausen,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Berlin: Reimer, 1885), 32.

하면서,³⁾ 이 고전적 기준의 비평적 의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편집비평 진영은 신명 사용 원칙의 기계적 적용을 비판하고 있고,⁴⁾ 이에 대한 자료비평 진영의 대응은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⁵⁾

자료비평적 합의가 무너진 이 시점에서, 왜 다시 이 고전적 질문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의아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오경의 형성사(composition history)는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⁶⁾ 자료비평 또한 이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⁷⁾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진영은 신명 사용이라는 고전적 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지각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현대 오경비평에서 고전적인 신명 사용 기준이 어떤 실질적, 규준적 의미를 지니는지 규명하려는 연

3) 최근의 논의에 대한 개괄적인 기술은 다음 두 권의 논문집을 참조하라. Jan Christian Gertz, Konrad Schmid, and Markus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Thomas B. Dozeman and Konrad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4) Erhard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issenschaftliche Monographien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471–477.

5) 대표적인 예는, Sean E. McEvenue, "A Return to Sources in Genesis 28,10–22?," *ZAW* 106 (1994), 386; Baruch J. Schwartz, "Does Recent Scholarship's Critique of the Documentary Hypothesis Constitute Grounds for Its Rejection?,"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and Baruch J. Schwartz(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16.

6) 오경비평에 관한 국내 학자들의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구덕관, "(五經)연구에서 문서설(文書說)은 죽었는가?," 「구약논단」1(1995), 7–26; 한동구, "오경 형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8 (1997), 154–175. 하지만 최근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는 형성사보다는 최종본문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면,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54 (2014), 90–126; 모창조, "이삭의 '바라크'(창 27:27–29, 39–40; 28:3–4)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54 (2014), 127–163.

7) 얼마 전까지는 '후기 아휘스트' 논쟁에 불을 지핀 H. 슈미트, 반 시터즈와 편집자로서 아웨 기자의 역할을 강조한 레빈 등의 수정주의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자료비평의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예를 들어, Joel S. Baden,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Jeffrey Stackert, *A Prophet like Moses: Prophecy, Law, and Israelite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이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다음을 참조하라. 홍국평, "소위 '신자료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44/2 (2012), 151–72.

구의 일환으로, 본격적인 논의의 토대를 놓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본문을 기술적(descriptive)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비평의 대표적인 신명 사용 이해 방식인 ‘점진적 계시 가설’(progressive revelation theory)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자(narrator)와 등장인물의 신명 사용을 비교하려 한다. 오경 본문의 배후를 형성하는 각 자료가 각기 다른 신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 자료비평가는 점진적 계시 가설을 따른다.⁸⁾ 오경의 네 자료 중 P와 E에서 ‘엘로힘’을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 선택이나 선호의 결과가 아니라,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특수한 계시관, 즉 ‘야웨’의 계시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야웨’가 모세에게 처음으로 계시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전 이야기에는 ‘야웨’의 시대착오적 사용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계시관을 따르지 않는 J 기자는(창 4:26) 모세 이전에도 ‘야웨’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출애굽기 초반의 ‘야웨’ 이름의 계시 시점(출 3장, 6장) 이후 신명 사용에 있어 전환이 일어난다는 점, 즉 엘로힘 대신 야웨를 사용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하지만 깊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만약 ‘야웨’의 시대착오적 사용 방지가 창세기 신명 교차 사용의 배경이라면, 이 문제는 등장인물의 ‘인지’의 영역, 즉 ‘이야기 속 세상’에 국한된 문제로, ‘이야기 밖 세상’에 속한 화자와 청중은 엄밀히 말해 이 문제에서 자유롭다. 청중과 화자는 등장인물의 인식 수준과 관계 없이, 애초부터 ‘야웨’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굳이 ‘이야기

8) 예를 들어, Antony F. Campbell and Mark A.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1993), 36, n. 38; Schwartz, "Recent Scholarship's Critique," 11-12; Joel S. Baden,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FAT 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74, 226-227; Baden, *Composition*, 21-23.

속 세상' 등장인물들의 인식 수준에 '이야기 밖 세상'의 담화 수준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⁹⁾ 흥미로운 질문이 생긴다. 과연 창세기 본문은 '이야기 속 세상'(등장인물)과 '이야기 밖 세상'(화자—청중) 사이의 신명 사용을 구분하고 있는가? 즉, 화자는 자유롭게 아웨를 사용하지만, 등장인물의 신명 사용은 점진적 계시관에 어긋나지 않게 조절한 흔적을 찾을 수 있는가? 학자들은 이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지만,¹⁰⁾ 실제로 면밀히 조사한 일은 없었다.¹¹⁾

둘째, 자료비평과 편집비평 진영 사이의 주된 차이는 한마디로 문서 층의 단절 양상 파악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는 자료 사이의 횡적 단절에(source model), 후자는 대개 전승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승 구획 사이의 종적 단절에(block model) 뿌리를 둔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명 사용 양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기술적 분석은 많지 않았고, 자기 진영의 논리를 변호,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활용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신명 사용은 전통적으로 자료 모델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과연 창세기의 신명 사용 양태가 실제로 자료비평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두 모델 중 어느 한 입장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¹²⁾

9) R. N.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64–65; R. W. L. Moberly, *The Old Testament of the Old Testament: Patriarchal Narratives and Mosaic Yahwism* (Minneapolis: Fortress, 1992), 36–79.

10) Konrad Schmid, *Genesis and the Moses Story: Israel's Dual Origins in the Hebrew Bible*, trans. James Nogalski (Siphut 3;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0), 82.

11) 브리흐토는 화자가 아웨를 사용한 경우를 간략히 정리한다. 이 문제를 문학적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시도는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Herbert Chanan Brichto, *The Names of God: Poetic Readings in Biblical Beginn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26. 하지만 그의 논의는 자료비평의 전제 밖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본고가 의도하는 비평적 분석과 성격이 다르다.

12) 논의의 필요에 의해 J 자료, E 자료 등의 자료비평적 용어와, 야곱 단락, 아브라함 단락 등 전승-편집 사적 개념을 모두 사용한다. 이는 공정한 비교분석을 위한 것이지만 필자의 개인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자료비평의 입장은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전통적 자료비평의 준거가 되는 노트와 프리드만의 입장을 기준으로 하고자 한다. Martin Noth,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2); Campbell and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Richard Elliott Friedman, *The Bible with Sources Revealed: A*

이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신명 사용과 관련해 드러나는 주목할 만한 특징들, 특히 현재까지 신명 사용을 이해해 왔던 틀과 관계없는 전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요소들을 관찰, 수집하여, 향후 오경의 신명 사용이라는 고전적 현상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는 데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2. 원역사

창세기의 초반부를 장식하는 원역사는 제사장 자료(P)와 야웨 자료(J)가 후대 편집자에 의해 편집된(compiled) 흔적을 오경의 어느 단락보다 분명히 보여주는 전통적 자료 구분(P/J)의 보루이다. 다음은 원역사에 등장하는 신명 사용을 도표화 한 것이다. 복잡한 도표를 피하고 패턴과 변화를 한 눈에 살피기 위해 장절 표기는 생략하고 횡으로 나란히 붙여서 표기한다. 또한 화자와 등장인물 담화를 구분하기 위해 화자는 하단에, 등장인물 담화는 상단에 배치하여 구분하고, 엘로힘은 눈에 띄게끔 음영 처리한다. 이를테면, ‘yy’는 나레이션에서 야웨가 두 차례, 등장인물 담화에서 엘로힘이 한 차례 사용된 것을 표시한다.¹³⁾

New View into the Five Books of Mose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3).

- 13) ‘엘로힘’은 기본적으로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모든 엘로힘이 야웨를 대체하는 호칭이 아닌 ‘신’이라는 일반명사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데(창 17:7-8, 30:8), 이런 경우는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하) 엘로힘이 “하나님의 사자” 등 연계 사슬 속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창: 5:1; 6:2, 4; 28:12; 32:1-2; 33:10). 이 경우도 엘로힘은 ‘야웨’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적 기원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 용법으로 볼 소지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야웨’가 연계 사슬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는 통계에 포함시킨다. 어떤 경우든 ‘야웨’라는 신명의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 계시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야웨 계시 시점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 4장부터 ‘야웨 엘로힘’은 사라지고 ‘야웨’가 단독으로 사용되기 시작한다. 고전적 J 본문이다. 화자는 일관되게 ‘야웨’만 사용하는 반면, 등장인물은 야웨와(창 4:1) 엘로힘을(창 4:25) 한 번씩 사용한다. 창세기 3장에서 관찰한 바 있는 J 본문 등장인물의 엘로힘 사용이 창세기 4장에서도 계속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¹⁵⁾ 특히 J가 점진적 계시관을 따르지 않는 근거로 널리 인용되는 구절 “사람들이 비로소 야웨의 이름을 불렀더라.”(창 4:26)가 이 단락 끝에 나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J 자료 내에서 창세기 4장 26절을 기준으로, 출애굽기 6장 2절을 기점으로 P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신명 사용의 전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¹⁶⁾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었지만, 이 구절 앞에 나오는 J 본문이 화자와 등장인물의 신명 사용을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은 아직까지 학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점이다. 하지만 J의 등장인물이 엘로힘을 종종 사용한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엘로힘 사용이 야웨 계시 시점과 관계없는 여타 요인, 이를테면 성서 후기 문헌에서 주로 나타나는 거룩한 이름 야웨를 입에 올리는 것을 자제하는 경향 등으로도 설명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창세기 5장은 ‘세페르 톨르돗 아담’이 나오는 P 본문이다. 나레이션에 서는 예상대로 (하)엘로힘이 사용되지만, 등장인물 담화에서 이례적으로 야웨가 사용된다(창 5:29). P 기자가 등장인물 담화에서 야웨를 사용

15) 프리드만은 창세기 4장 25절을 편집자의 삽입구로 처리한다. 두 자료 사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처사라는 것이다. Friedman, *Sources Revealed*, 40. 하지만 그렇다면 왜 편집자가 야웨 대신 엘로힘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16) 이 문제와 관련해, 맛소라 본문 창세기 4장 1절에서 하와가 이미 ‘야웨’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큐리오스’ 대신 ‘테오스’를 사용한다. 창세기 4장 26절의 언급을 염두에 둔 칠십인역 번역자의 개작인가, 아니면 마소라 본문보다 오래된 본문 전승의 반영인가? 참고로, 맛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 신명 용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고, 그 의의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에 카이가 이 문제를 간단히 정리한 바 있다. David M. Carr,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05 – 107.

했다는 것은 P의 점진적 계시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사용이다. 따라서 자료비평가들은 이 구절이 본디 야웨 자료였을 것으로 보고, 이 구절이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 여기에 삽입되었을 것이라고 본다.¹⁷⁾ 자료비평의 허점을 가리는 도구(*Deus ex machina*)로 편집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¹⁸⁾

2) 창세기 6장 1절-11장 26절: 홍수와 그 이후 이야기

홍수 이야기(창 6:1-9:17, J/P)는 창조 이야기와 함께 J와 P가 하나로 편집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큰 그림을 보면, 야웨를 사용하는 단락(J)과 (하)엘로힘을 사용하는 단락(P)이 교차한다. 이후에도 이런 양상을 보이는 본문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 단락은 구분된 두 가닥의 이야기가 평행을 이룬다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 이들 신명은 대부분 나레이션에 나오고, 등장인물 담화에 나오는 경우는 두 차례뿐이다(창 9:6, 16, P). P 자료의 등장인물이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다.

홍수 이후 술 취한 노아 이야기(창 9:18-29, J)가 짧게 등장하는데, 나레이션에는 신명이 등장하지 않고, 등장인물인 노아의 입에서 야웨와 엘로힘이 한 차례씩 사용된다(창 9:26, 27). 원역사 J 자료에서 발견된 점과 맥이 통한다. 창세기 10-11장 단락에서 신명은 화자만 사용하는데, 일관되게 야웨만 사용하는 전형적 J 자료이다.

17) John Skinn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1; Edinburgh: T & T Clark, 1910), 133; Claus Westermann, *Genesis: A Commentary*, trans. John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1984), 359;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ex.: Word Books, 1987), 129.

18) 이 문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John Van Seters,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6).

3.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족장사의 자료/편집층의 조합 방식은 원역사에 비해 복잡하고 양상 또한 다르다. 여전히 제사장 본문(P)은 비제사장 본문(non-P)과 구분되지만, 족장사에서 P의 분량은 현저히 줄어들고(창 17장, 23장 일부), 자료 구분의 기준이 훨씬 애매한 비제사장 자료 J와 E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⁹⁾

| | | | | | |
|-------------------------------|-----------------|---------------|----|---------------------------|----|
| 12-16 | | 17 | | 18-19 | |
| 12_yyyyyyyyyyyyyyy^ay^yy^yyyy | | y^S**_eeeeeee | | 18_yyyy^yy^yyyy^yy^yyyyee | |
| | | 아케다 | | 리브가 | |
| 20 | 21 | 22 | 23 | 24 | 25 |
| ehcehey | yyee^ee^ee^e^y* | hh^hy^yy | e | y^yy^yyyyyyyyyy^yy | e |

*ay=아도나이 야웨 **S=엘-삿다이

큰 틀에서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23장, 25장은 일반적인 P의 신명 사용 양태를 보인다. 비제사장 계열 'JE' 본문의 신명 사용 양태는 원역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반부는 '야웨' 편향이 강한 본문이 이어지다가 창세기 20-22장은 '엘로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창세기 24장은 다시 야웨만 사용되는 등 본문 구획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런 구획간 차이를 자료의 차이로 보는 자료비평적 논리의 타당성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19) E에 대한 본고의 논의는 E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전통적 자료비평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뿐, E의 존재나 성격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

1) 제사장 자료: 창세기 17장 등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일반적으로 P 단락으로 구분되는 본문은 창세기 17장, 23장, 25장 일부이다. 창세기 23장, 25장의 P 본문에는 신명 사용 자체가 드물고(창 23:6, 25:11), 그나마도 모두 엘로힘만 사용된 P의 일반적 모습이다. 반면 창세기 17장은 전통적으로 비제사장 계열(non-P)의 창세기 15장과 대비되는 평행 본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7장의 화자와 등장인물은, 첫 절인 창세기 17장 1절을 제외하면 (하)엘로힘을 사용한다. 창세기 17장 1절의 등장인물 담화에는 ‘엘 샷다이’가 나오는데, 이는 P의 전형적 특징으로, 자연스러운 일이다.²⁰⁾ 문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화자가 야웨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P 자료에서, 야웨의 모세 계시 이전에, 화자가 야웨를 사용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P의 점진적 계시관에 어긋나는 용례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몇몇 자료비평가는 이 야웨 사용을 편집자의 흔적으로 본다.²¹⁾ 하지만 엄밀히 말해, 화자의 야웨 사용은 P의 점진적 계시관에 저촉되지 않는다. 화자가 청중과의 소통에서 본문 속 세계관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예외가 역으로 P의 점진적 계시관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²²⁾ 만약 P의 화자가 출애굽기 6장 이전 본문에서 ‘야웨’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등장인물 담화에서만 철저히 배제했다면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참고: 창 35:9).

20) 아브라함의 ‘엘 샷다이’ 사용은 창세기의 유사한 몇몇 본문(창 17:1, 28:3, 35:11, 48:3)과 함께 출애굽기 6장 3절의 점진적 신명 계시관과 일대일로 대응하며 P의 통일된 계시관을 드러낸다.

21) Hermann Gunkel, *Genesis*, trans. Mark E. Biddle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263.

22) 비교: Friedman, *Sources Revealed*, 56, n. *.

2) 야웨 자료: 창세기 11장 27-16장, 18장-19장, 24장

창세기 11장 27-16장, 18-19장은 화자와 등장인물 구분 없이 공히 야웨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전형적인 야웨 자료의 특징을 보인다.²³⁾ 최근 학자들이 후대 본문으로 규정하곤 하는 창세기 24장도²⁴⁾ 신명 사용에 있어서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이 점에서 등장인물 담화에서 종종 ‘엘로힘’을 사용했던 원역사의 J 본문과 다르다.

창세기 15장은 창세기 17장에 상응하는 비제사장 계열 본문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으로 학자들의 합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J와 E의 구분에 있어서는 큰 이견이 있었고, 창세기 15장을 E 자료가 시작하는 지점으로 본 학자도 많았다.²⁵⁾ 최근에는 제사장 후기(post-P) 문헌층의 흔적을 담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²⁶⁾ 하지만 신명 사용만 놓고 보았을 때, 창세기 15장은 주변의 J 본문과 대동소이하다. 화자는 야웨만 반복해 사용하고, 등장인물 아브람도 ‘야웨’ 혹은 ‘아도나이 야웨’로 하나님을 지칭한다. 따라서 신명 사용만 놓고 보면, 본 단락을 E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다.

3) 엘로힘 자료: 창세기 20-22장

창세기 20-22장에는 ‘엘로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 자연히 이 단락

23) 이 단락에서 화자가 엘로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창 19:29),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일관되게 제사장 단락으로 규정한다.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13; Westermann, *Genesis*, 299, 308; Friedman, *Sources Revealed*, 61. 그런데 칠십인역의 여러 사본이 ‘큐리오스’를 사용한다는 점은 이 주장의 타당성을 재고하게 한다.

24) Alexander Rofé, “An Inquiry into the Betrothal of Rebekah,” Erhard Blum, Christian Macholz, and Ekkehard Stegemann(eds.), *Die Hebräische Bibel und ihre zweifache Nachgeschichte: Festschrift für Rolf Rendtorff zum 6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27-40.

25) 이를테면, Wellhausen, *Composition*, 23-24;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25, 33. 더 많은 예는, Schmid, *Genesis and the Moses Story*, 158, n. 5를 참조하라

26) 이를테면, Eckart Otto, “Die Nachpriesterschriftliche Pentateuchredaktion,” M. Vervenne(ed.), *Studies in the Book of Exodus: Redaction, Reception, Interpretation* (BETL 126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6), 61-111; Schmid, *Genesis and the Moses Story*, 158-171.

은 전통적 자료비평에서 E 단락으로 여겨져 왔다.²⁷⁾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조사한 어느 단락보다 더 불규칙하게 두 신명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홍수 기사와 달리 ‘야웨’가 사용된 본문 구획과 ‘엘로힘’이 사용된 구획은 평행 본문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료를 구분하면 본문의 문학적 통일성을 파괴하고 파편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료비평가들이 이 단락 전체를 E 자료로 보고 야웨 사용 구절을 편집자나 후대 자료의 첨가로 보는 이유이다.

나레이션에는 (하)엘로힘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야웨를 사용하는 구절들이 산발적으로 삽입되어 있다(창 20:18–21:1; 21:33;²⁸⁾ 22:14–22:16²⁹⁾). 등장인물 담화 또한 전반적으로 엘로힘을 사용하지만, 창세기 22장 후반에 야웨를 사용하는 경우가 두 차례 나온다(창 22:14). 원역사 J 본문 등장인물 담화에서 엘로힘이 사용된 것과 정확히 반대의 경우인데, 그 경우와 달리 본문의 야웨 사용은 자료비평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본 단락이 E 단락이라면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결코 ‘야웨’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야웨’가 화자에 의해 사용된 경우(창 20:18, 21:1)는 원칙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창 17:1 참조), 등장인물 담화는 다르다. 자연히 자료비평가들은 이 부분이 편집자에 의해 삽입되었다는

27)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Thomas Römer, “Abraham’s Righteousness and Sacrifice: How to Understand (and Translate) Genesis 15 and 22,” *Communio Viatorum* 54 (2012), 3–15; Thomas Römer, “Le «sacrifice d’Abraham», Un Texte élohiste? Quelques Observations à Partir de Gn 22, 14 et D’un Fragment de Qumrân,” *Semítica* 54 (2012), 163–72; Koog P. Hong, “Abraham, Genesis 20–22, and the Northern Elohist,” *Biblica* 94 (2013), 321–39.

28) 창세기 21장 3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야웨 엘 올람”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다. 학자들은 이 구절도 E의 일부로 보곤 하는데, 어떻게 E의 등장인물이 야웨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베이든은 창세기 21장 22–34절 전체를 J로 보아 이 문제를 해결한다. Baden, *J. E. and the Redaction*, 216.

29) 창세기 22장 14–16절에서 ‘야웨’가 절대형으로 사용된 것은 한 차례뿐이지만(창 22:16) 연계형으로 세 차례(“야웨의 사자” 창 22:11, “야웨 이레”, “야웨의 산” 창 22:14) 사용된다. 이들 야웨 사용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편집자(RJE)에 기대기도 하고 (ibid., 228, n. 58.), J나 P 자료로 보기도 한다. 이를테면, 프리드만은 처음 것은 J로, 둘째 것은 P로 돌리며, 이 구절이 자료비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몇 안 되는 예외 구절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Friedman, *Sources Revealed*, 62.

고전적인 설명을 제시하는데,³⁰⁾ 이런 시도는 순환 논리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설득력도 빈약하다.

특이하게도, 야웨가 사용되는 구절이 모두 장의 시작이나 끝에 모여 있다. 이를테면, 창세기 20장은 나레이션과 등장인물 담화에서 줄곧 (하)엘로힘을 사용하다가 장 마지막에 갑자기 야웨를 사용한다(창 20:18). 야웨 사용은 창세기 21장 초반(창 21:2, 4)까지 이어지다가, 다시 엘로힘으로 전환하여 창세기 21장의 나머지 부분에선 엘로힘이 줄곧 사용된다. 그러다가 창세기 21장의 마지막에서(창 21:33) 야웨가 한 번 사용된다. 창세기 22장은 다시 (하)엘로힘을 사용하다가(창 22:1-9, 12), 후반부에서 야웨로 선회한다(창 22:11-16).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단락의 신명 사용은 복수의 자료를 조합한 흔적이라기보다 이와 관계없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³¹⁾

4. 야곱 이야기

야곱 이야기에 들어서면 E 자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신명 사용 양태가 급변한다. 자료비평가에게 야곱 이야기의 J와 E 자료의 성격, 범위, 정체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³²⁾ 큰 그림을 보면, 전반부(창 25, 26, 27장)는 야웨를 주로 사용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엘로힘의 빈도가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0) 예를 들어, Friedman, *Sources Revealed*, 65.

31) 혹여 서기관의 필사 과정이나 본문 교육과 재생산 과정에서 생긴 기억을 돕는 도구(mnemonic device)와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물론 현재의 장 구분은 후대의 산물임을 알지만, 창세기 20-22장의 경우 현재의 장 구분이 본문의 내용상 전환과 밀접히 상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 구분의 후대성과 관계없이 진지하게 고민해 볼 문제이다.

32) 일찍이 벨하우젠은 이 단락에서 J와 E의 구분을 포기하고 JE라는 이름의 혼합 명칭을 사용했는데, 이런 전통은 그 이후에도 오래 지속되었다. Wellhausen, *Composition*, 29-50. JE 개념과 그에 얽힌 이론에 대한 재검토와 비평은 다음을 참조하라. Baden, *J, E, and the Redaction*, 45-98.

| | | | | | | | | | |
|------|-----------|------|----|-------------|--------|-----------------|---------------------|-------|------------|
| | 이삭 단락 | | 벤엘 | 밧단아람 | | | | | |
| 25 | 26 | 27 | 28 | | 29 | 30 | 31 | 32 | 35 |
| yyyy | yy'y'y'y' | yyyh | Se | y'y'y'e'e'e | y'y'y' | e'e'e'e'e'e'y'y | y'e'e'e'e'e'e'e'e'e | y'e'e | eeheee'see |

1) 제사장 자료

야곱 이야기에는 P 본문이 많지 않지만, P 자료(창 27:46-28:9, 35:9-28*)는 예외 없이 P의 특징적 신명 사용 양태를 따른다. 화자는 (하)엘로힘을 사용하고, 등장인물은 ‘엘 샷다이’(창 28:3, 35:11)와 엘로힘(창 28:4)만 사용한다. 창세기 17장과 함께 P의 점진적 계시관에 부합하는 대표 본문이다.

2) 비제사장 자료

야곱 이야기의 초반부(창 25:19-27:46)는 화자와 등장인물 모두 야웨를 사용하는 J 자료의 전형적 양태를 띤다. 이 점은 창세기 25-27장의 야곱과 에서의 갈등 기사와 중간에 삽입된 창세기 26장의 이삭-아비멜렉 기사에 공히 적용된다.³³⁾ 유일한 예외는 창세기 27장 28절에 등장인물 담화(이삭)에서 사용된 ‘하엘로힘’인데, 앞서 원역사에서 J 자료 등장인물이 (하)엘로힘을 사용하는 것을 몇 차례 관찰한 바 있다.

창세기 28장 10-22절의 벤엘 기사는 자료 구분과 신명 사용에 있어 논쟁의 핵심에 있는 장으로, 자료비평과 편집비평 간 본문 형성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 전장이다.³⁴⁾ 화자는 야웨만 한 차례 사용하고(창

33) 외국인인 아비멜렉도 이삭과 대화할 때 야웨를 사용한다(창 26:28, 29). 자료비평가들은 J 자료에서 외국인인 야웨 대신 엘로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관찰을 해 왔는데(예를 들어, Baden, *J, E, and the Redaction*, 216.),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34) 예를 들어, Blum, *Vätergeschichte*; McEvenue, "Return to Sources"; John Van Seters, "Divine Encounter at Bethel (Gen 28,10-22) in Recent Literary-Critical Study of Genesis," *ZAW* 110 (1998), 503-513; David M. Carr, "Genesis 28,10-22 and Transmission-Historical Method: A Reply to John Van Seters," *ZAW* 111 (1999), 399-403; Erhard Blum, "Noch Einmal: Jakobs Traum in Bethel-Genesis 28,10-22," Steven L. McKenzie and Thomas Römer(eds.), *Rethinking the*

28:13), 등장인물은 야웨와 엘로힘을 모두 사용한다(야웨: 창 28:13, 16, 21절). 전반적으로 뵤엘 기사에서는 엘로힘과 야웨가 교차하는 양태가 매우 복잡하며, 자료비평적으로 설명하기 난해하다.

야곱의 자녀 출생을 다루는 창세기 29장 1절-30장 24절에는 전반적으로 야웨 사용 단락과 엘로힘 사용 단락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인다. 레아의 첫 네 아들 출생 보도(창 29:31-35)는 줄곧 야웨만 사용한다. 이후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모든 출생 보도(창 30:1-23)는 엘로힘만 사용한다. 자녀 출생 후 아람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는 창세기 30장 25절 이후 창세기 31장 초반까지는 야웨 사용이 밀집되어 있다. 이후 창세기 31장이 종결될 때까지 줄곧 엘로힘이 화자와 등장인물에 의해 사용되다가 종결부에서(창 31:49) 야웨가 재등장한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관찰한 바 있는, 장의 시작과 끝에 신명의 전환이 집중되는 현상과 유사하다는 점(창 30장, 31장 결말부)에서 눈길을 끈다. 창세기 32장에는 마하나임 사건, 에서와의 만남 준비, 브니엘 사건이 전개되는데, 신명 사용이 드물지만 모두 등장인물 담화에 나온다. 엘로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야웨가 한 번 야곱의 입에서 사용된다(창 32:9). 창세기 33장에서 화자는 신명을 사용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의 대화에서 엘로힘이 사용된다(창 33:5, 11). 디나 사건을 보도하는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 이름이 사용되지 않고, 야곱의 귀향을 보도하는 창세기 35장은 엘로힘, 하엘로힘, 엘 샷다이 등 비야웨 계열 신명만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33장 이후 야웨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화자와 등장인물의 신명 사용을 살펴보면, 이전 단락에 비해 두 신명이 한층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E 단락 등장인물 담화에서

Foundations: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in the Bible : Essays in Honour of John Van Seters (BZAW 294; Berlin: de Gruyter, 2000), 33-54.

야웨가 사용되는 상황이다. 점진적 계시 가설에 의하면 E 자료 등장인물은 결코 ‘야웨’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곱 이야기에서 이런 상황은 몇몇 구절에서 나타난다(창 28:21; 30:24, 27, 30; 31:49; 32:9[10]). 앞서 아브라함 E 단락에서 이미 유사한 경우를 살펴본 바 있다. 이런 상황은 자료비평의 논리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자료비평가들은 이들 구절을 모두 J 자료의 파편이나 편집자의 삽입으로 처리한다. 자료비평은 본래부터 신명 사용을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결국 문제는 이렇게 구분된 E 본문과 J 삽입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느냐에 귀결된다.

물론 이들 구절에 대한 자료비평적 논의가 모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30장 24절³⁵⁾의 요셉 출생 보도나 창세기 31장 49절³⁶⁾의 경우는, 구분된 J와 E 사이에 평행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자료비평의 논리에 부합한다. 또한 창세기 32장 9[10]절은 정황상 후대의 편집구로 볼 개연성이 높고 이는 편집비평학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외의 구절은 자료비평적 해법의 치명적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구분된 자료가 독립된 평행 본문을 양산하지 않고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파괴하며, 본문을 파편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³⁷⁾ 자료 구

35) ‘요셉’이란 이름에 각기 다른 두 의미가 제시되는데(창 30:23, 24), 한 번은 엘로힘을, 다른 한 번은 야웨를 통해 설명한다. 하지만 이 또한 두 자료 수합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요셉 이름의 뜻에 관한 두 개의 유력한 전승이 모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신명이 교차 사용되는 것은 평행법의 일반적 용법에 따라 어색한 반복을 피하기 위한 혹은 다양성과 심미성 제고를 위한 기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참고로 두 구절은 각각 알렘과 요드로 시작하는 각운을 형성한다.

36) 창세기 31장 49절은 라반과 야곱은 증거의 무더기를 쌓는데, 이 무더기에 대해서는 세 개의 다른 이름(여갈사하두다, 갈렛, 미스바)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서 야웨와 엘로힘의 병행 사용을 두 자료의 흔적으로 볼 정황 증거는 확보된다. 그러나 여전히 둘이 아닌 세 이름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과연 두 자료의 종합이 본문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참고로, 프리드만은 라반의 야웨 사용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명 없이 이 구절을 E 자료로 본다. Friedman, *Sources Revealed*, 84.

37) 파편화의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의 자녀 출생 보도이다. 실제로, 신명을 기준으로 한 자료구분을 통해 E와 J가 상이한 지파목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이스라엘의 열두 지

분의 신빙성은 물론 통일된 본문으로 읽기에 하자가 없는 본문에 자료 비평적 틀을 투사한 결과는 아닌지 비평적 명분과 기능상 의의에 관해서도 질문을 던지게 된다.³⁸⁾ 예를 들어, 창세기 28장 21절은 앞뒤 문맥에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잘라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³⁹⁾ 프리드만과 같은 자료비평의 수호자도 이 단락은 해결할 수 없는 예외임을 인정한다.⁴⁰⁾ 창세기 30장에서는 라반과 야곱이 야웨를 언급하는데(창 30:27, 30), 이를 근거로 자료비평가들은 창세기 30장 후반부(창 20:25-43)를 모두 J 자료로 돌린다.⁴¹⁾ 문제는, 이 단락이 바로 이어지는 E 단락인 창세기 31장(특히 창 31:1-2)의 내용상의 직접적 배경이 된다는 점이다.⁴²⁾

무엇보다 이런 방식은 순환 논리의 오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 단락에서 등장인물이 야웨를 사용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모든 구절을 J 자료의 파편이나 편집자의 삽입으로 미연에 제거한 후, 다시 그 자료 구분을 근거로 E 단락이 야웨를 기피하고 있고 따라서 점진적 계시관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순환 논리이다. 사실 이런 해결책은 자료비평의 틀 안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일면 용인 가능한 측면이 있다. 가설의 수립과 검증 과정에서 모든 가설은 일정 수준의 순환 논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최종 결과물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때, 가설 검증 단계에서 노출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설은 신빙성을 얻

파는 편집의 산물이 된다. Tzema Yoreh,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According to E?," ZAW 118 (2006): 264-68. 물론 J와 E가 공통 전승(소위 Grundlage: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38-41.)의 영향 하에 있었으며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같은 이야기라면 두 자료 중 하나만 선택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는 공통 전승이라는 검증 불가능 가상의 집단 전승을 상정해야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자료비평의 오랜 숙제이다.

38) 예를 들어, Whybray,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65.

39) 벨하우젠을 비롯한 많은 학자는 이 구절을 편집자의 삽입으로 본다. Wellhausen, *Composition*, 30-31; Campbell and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112, 170, 261-2.

40) Friedman, *Sources Revealed*, 77. 다음도 참조하라.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264.

41) Friedman, *Sources Revealed*, 81.

42) 이에 노트는 창세기 31장 1-3절을 JE로 돌린다.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98, 265.

게 된다. 문제는 야곱 이야기만 놓고 보았을 때 자료비평의 자료 구분은 설득력이 빈약하고, 따라서 과연 자료비평이 이 본문을 설명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야곱 이야기에서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야곱 이야기의 신명 사용 양태는 자료들의 수합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야곱 이야기는 J와 E가 뒤섞인 소위 JE 본문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자료비평의 문제를 잘 드러낸다. 과연 자료 모델이 야곱 이야기의 형성을 설명하는 최선의 방식인지 고민하게 한다. 둘째, 전반적으로 본문 소단위의 구획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장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에서 야웨가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야곱 이야기의 신명 교차 사용이 자료의 수합 외의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야곱 이야기의 신명 사용 양태는 앞서 등장한 아브라함 이야기나 원역사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는 창세기 전체를 자료 수합의 모델로 설명하는 것보다 각 단위(block)마다 형성의 역사가 상이했다는 편집비평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5. 요셉 이야기

| | | | | | |
|-----|-----|-----------------------|--|--------|-------|
| | 다말 | | | | |
| 37 | 38 | 39 | 40 | 464748 | 49 50 |
| ... | yyy | yyyy ^e yyy | eehhheeecheSeeehee ^{eeee} Seehhee | y | eeeee |

아브라함/야곱 이야기 등 족장사의 앞선 이야기와 근본적 차이가 있는 성격의 문헌으로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바 있는 요셉 이야기는,⁴³⁾ 신명

43) Gerhard Von Rad, "The Joseph Narrative and Ancient Wisdom," in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 W. Trueman Dicken (New York: McGraw-Hill, 1966), 292-300. 다른 의견으로는, Michael V. Fox, "Wisdom in the Joseph Story," *VT* 51 (2001), 26-41.

사용 양태에 있어서도 앞 단락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⁴⁴⁾ 표면적으로는 창세기 40장 이후, ‘야웨’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긴 ‘(하)엘로힘 본문’이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에도 엘로힘이 주로 사용되었던 본문 구획이 있었지만, 요셉 이야기에서처럼 (하)엘로힘이 열 장 가까이 지속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또한 이런 엘로힘 편향은 창세기 40장 이전에 위치한 다소 긴 ‘야웨 본문’(창 37-39장)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특수하고, 그 비평적 의의가 무엇인지 질문하게 한다.

1) 창세기 37-39장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37장에는 신명이 등장하지 않는다. 요셉 이야기에 삽입된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이야기에는 야웨만 세 차례 나레이션에서 사용된다.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 이야기를 재개하는 창세기 39장에서 화자는 야웨를 사용하는 반면, 등장인물은 엘로힘을 사용한다(창 39:9, 요셉). 이는 원역사와야곱 이야기 J 단락에서 종종 관찰되던 현상이다(창 3:1, 3, 5, 4:25, 27:28). 여기서 엘로힘이 사용된 것은 이 대화가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과 나눈 대화라는 점이 고려되었을 수도 있다.⁴⁵⁾

2) 창세기 40-50장

창세기 40장 이후의 패턴은 독특하다. 일단 열 한 장에 이르는 긴 본문에서 야웨 사용은 단 한 차례 등장할 뿐이다(창 49:18).⁴⁶⁾ 흥미롭게도 화자가 신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등장인물 담화에서 사용된

44) 예를 들어, Donald B. Redford,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esis 37-50)* (VTSup 20; Leiden: Brill, 1970), 128-30.

45) 이런 현상이 일관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위 각주 32번을 참조하라.

46) 이마저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후대의 삽입으로 본다. Noth, *Pentateuchal Traditions*, 84.

다(창 38-39장과 반대 상황).⁴⁷⁾ 신명 사용만 놓고 보면, 이 부분 전체를 P 자료로 봐도 무방할 만큼 P와 신명 사용 양태가 닮았다(창 17장, 35장). 엘로힘 편향도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삽입된 P 본문의 엘-샷다이 때문이기도 하다.

요컨대,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나, 점진적 계시관에 저촉되는 야웨 사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요셉 이야기는 전반부(창 37-39장)와 후반부(창 40-50장)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6. 정리 및 맺음말

본고는 자료비평의 근간을 이뤘던 신명 사용 원칙을 최근 오경비평의 경향에 발맞추어 재조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다. 우선 창세기에서 주로 엘로힘을 사용하는 E와 P 자료의 특징적 신명 사용이, ‘야웨’가 모세에게 처음 계시되었다는 점진적 계시관에 의거한 ‘야웨’의 시대착오적 사용 방지 노력의 결과라는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신명 사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창세기 전반의 신명 사용이 자료비평과 편집비평 중 어느 진영의 입장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관찰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1) P 자료의 신명 사용은 점진적 계시 가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E 자료는 자료 구분 자체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조사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전통적 자료 구분 내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해도 E 기자가 시대착오적 사용을 기피하려 했다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 특히 E 단락 등장인물 담화에서 ‘야웨’가 사용된, 점진적 계시론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47) 요셉 단락 대부분이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방인과의 교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대화할 때도 엘로힘을 사용한다는 사실은(창 42:28) 그 외의 다른 이유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자료비평은 이런 예외적 사용을 모두 J 자료의 단편이나 편집자의 삽입으로 돌릴 뿐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2) 도리어 자료비평가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J 자료의 등장인물 담화에서 야웨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창 2:4b-3:24, 9:18-29, 39:9). 이것은 등장인물 담화에서 야웨 사용을 자제하는 것은 비단 점진적 계시관에 의거한, ‘야웨’의 시대착오적 사용 방지라는 목적 외에도 거룩한 이름 야웨의 발화를 기피하는 목적 등 다른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간접적으로 자료비평의 점진적 계시 이론을 약화시킨다.

3) 창세기 전반에 걸쳐 화자와 등장인물 간의 차이보다는 본문 구획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야웨가 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화자와 등장인물이 모두 야웨를, 엘로힘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는 화자와 등장인물 모두 엘로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4) 원역사와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는 야웨와 엘로힘의 교차 사용 양태가 각기 다르다. 이를테면, 같은 J 본문이라도, 원역사에서는 화자와 등장인물 사이에 신명 사용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족장사에서는 화자와 등장인물 모두 야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원역사는 족장사와 달리 P와 J 자료의 조합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주로 J와 E 자료의 조합으로 이뤄진 족장사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족장사의 세 단락 사이의 신명 사용 양태의 차이는 자료비평적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엘로힘을 사용하는 본문은 창세기 20-22장 단락에 집중되어 있다. 만약 이 단락을 E 자료로 볼 경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비제사장 계열 두 자료는 연속된 평행 자료가 아닌 아브라함 일대기 중 서로 다른 에피소드의 모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야곱 이야기에서 J와 E는 서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얽혀 있는 모습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와 상이하다. 반면에, 요

셉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처럼 전반부는 야웨를 사용하는 본문이, 후반부에는 엘로힘을 사용하는 본문의 덩어리가 뭉쳐 있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본문에 드러난 신명 사용 양태는, 창세기 본문이 세 자료의 조합으로 이뤄졌다는 고전적 자료가설의 설명보다 각 전승 단위는 독립된 형성 과정을 가졌다는 전승사적 편집 가설에 더 무게를 실어준다.

5) 족장사를 구성하는 세 전승 단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야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전반부는 야웨 사용이 많고 후반부로 갈수록 엘로힘 사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물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 각 단락의 독립적 발전을 가정하고, 동시에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후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다 오래된 전승은 야웨를 사용하지만 후대에 첨가된 내용은 엘로힘 사용이 많아진다는 관찰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전반부가 더 고대의 전승이라는 가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지만, 야곱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야기는 후반부의 편집된 양태가 전반부보다 느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찰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근거가 빈약한 이런 추측을 하는 이유는, 성서 후기로 갈수록 신명 야웨 사용이 줄어들고 엘로힘 사용이 늘어난다는 히브리성서 전반에서 관찰되는 일반적 현상 때문이다. 이 일반적 관찰과 오경이나 시편 일부에서 드러나는 엘로힘 사용 혹은 엘로힘 편집이라는 특수한 관찰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본고의 관찰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즉각적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향후 이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라고 할 수는 있겠다.

6) 장 구분을 포함한 본문의 단락 전환 시 이전 단락에서 사용된 신명이 전환 후에 잠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 이하, 17장 1절, 19장 29절, 4장 1절, 4장 25절, 5장 29절 등이다. 유사한 현상으로, 단락의 종결 부분에서 신명 사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일이

중중 발견된다. 이를테면, 창세기 30장 후반부에서 창세기 31장 전반부에 야웨 사용이 집중되어 있고, 창세기 31장 결말부인 창세기 31장 49절에서 야웨가 다시 사용된다. 현재로서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자료나 편집 등 저작과 관련된 단계가 아닌 본문의 전수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은 아닌지 계속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7) J 기사에서 내부인은 야웨, 외부인은 엘로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은 옳지 않다. 비이스라엘인은 엘로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창 21:22, 39:9),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에서 아비멜렉은 이삭과 대화할 때(창 26:28, 29) 야웨를 사용한다.

신명 사용 원칙이 자료비평가에게 전통적으로 제공했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기준’이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그 기준은 훨씬 더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고전적 자료비평이 이해한 신명의 교차 사용 현상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종합적인 재고찰의 결과가 모일 때 현재 미약해진 오경비평의 터전은 다시 견고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7. 참고문헌

구덕관. “(五經) 연구에서 문서설(文書說)은 죽었는가?” 『구약논단』 1 (1995), 7-26.

모창조. “이삭의 ‘바라크’(창 27:27-29, 39-40; 28:3-4)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54 (2014), 127-163.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 (2014), 90-126.

- 한동구. “오경 형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구약논단』 8 (1997), 154-175.
- 홍국평. “소위 ‘신자료비평’에 대한 비판적 소고.” 『장신논단』 44/2 (2012), 151-72.
- Astruc, Jean. *Conjectures sur les memoires originaux: dont il paroît que Moyses’est servi pour composer le livre de la Genese* (A Bruxelles: Chez Fricx, 1753).
- Baden, Joel S. J, E, and the Redaction of the Pentateuch (FAT 68; Tübingen: Mohr Siebeck, 2009).
- _____.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Renewing the Documentary Hypothesi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2).
- Blum, Erhard.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 _____. “Noch Einmal: Jakobs Traum in Bethel-Genesis 28,10-22,” Steven L. McKenzie and Thomas Römer(eds.), *Rethinking the Foundations: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in the Bible : Essays in Honour of John Van Seters* (BZAW 294; Berlin: de Gruyter, 2000), 33–54.
- Brichto, Herbert Chanan. *The Names of God: Poetic Readings in Biblical Beginning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Campbell, Antony F. and Mark A. O’Brien. *Sources of the Pentateuch: Texts, Introductions, Annotations* (Minneapolis: Fortress, 1993).
- Carr, David M. “Genesis 28,10-22 and Transmission-Historical Method: A Reply to John Van Seters,” *ZAW* 111 (1999), 399–

403.

_____. The Formation of the Hebrew Bible: A New Reconstr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Dozeman, Thomas B., and Konrad Schmid, eds. A Farewell to the Yahwist?: The Composition of the Pentateuch in Recent European Interpretation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6).

Friedman, Richard Elliott. The Bible with Sources Revealed: A New View into the Five Books of Mose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2003).

Gertz, Jan Christian, Konrad Schmid, and Markus Witte,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Gunkel, Hermann. Genesis. Translated by Mark E. Biddle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97).

Harvey, Bruce J. YHWH Elohim: A Survey of Occurrences in the Leningrad Codex and Their Corresponding Septuagintal Renderings (LHBOT 537; New York: T & T Clark, 2011).

Hong, Koog P. "Abraham, Genesis 20-22, and the Northern Elohist," *Biblica* 94 (2013), 321-39.

McEvenue, Sean E. "A Return to Sources in Genesis 28,10-22?," *ZAW* 106 (1994), 375-89.

Moberly, R. W. L. The Old Testament of the Old Testament: Patriarchal Narratives and Mosaic Yahwism (Minneapolis: Fortress, 1992).

Noth, Martin. A History of Pentateuchal Tradition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72).

www.kci.go.kr

- Otto, Eckart. "Die nachpriesterschriftliche Pentateuchredaktion," M. Vervenne(ed.), *Studies in the Book of Exodus : Redaction, Reception, Interpretation* (BETL 126;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6), 61-111.
- Redford, Donald B. *A Study of the Biblical Story of Joseph* (Genesis 37-50) (VTSup 20; Leiden: Brill, 1970).
- Rofé, Alexander. "An Inquiry into the Betrothal of Rebekah," Erhard Blum, Christian Macholz, and Ekkehard Stegemann(eds.), *Die Hebräische Bibel und ihre zweifache Nachgeschichte: Festschrift für Rolf Rendtorff zum 65.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 27-40.
- Römer, Thomas. "Abraham's Righteousness and Sacrifice: How to Understand (and Translate) Genesis 15 and 22," *Communio Viatorum* 54 (2012), 3-15.
- _____. "Le «sacrifice d'Abraham», Un Texte élohiste? Quelques Observations à Partir de Gn 22, 14 et D'un Fragment de Qumrân," *Semitica* 54 (2012), 163-172.
- Schmid, Konrad. *Genesis and the Moses Story: Israel's Dual Origins in the Hebrew Bible* Translated by James Nogalski (Siphut 3.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10).
- Schwartz, Baruch J. "Does Recent Scholarship's Critique of the Documentary Hypothesis Constitute Grounds for Its Rejection?," Thomas B. Dozeman, Konrad Schmid, and Baruch J. Schwartz(eds.), *The Pentateuch: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Current Research* (FAT 7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3-16.
- Segal, M. H. "El, Elohim, and Yhwh in the Bible," *JQR* 46 (1955), 89-115.

- Skinner, John.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Genesis* (ICC 1; Edinburgh: T& T Clark, 1910).
- Stackert, Jeffrey. *A Prophet like Moses: Prophecy, Law, and Israelite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Van Seters, John. "Divine Encounter at Bethel (Gen 28,10-22) in Recent Literary-Critical Study of Genesis." *ZAW* 110 (1998), 503–513.
- _____. *The Edited Bible: The Curious History of the "Editor" in Biblical Criticism* (Winona Lake, Ind.: Eisenbrauns, 2006).
- Wellhausen, Julius. *Die Composition des Hexateuchs* (Berlin: Reimer, 1885).
- Wenham, Gordon J. *Genesis 1-15* (WBC 1; Waco, Tex.: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laus. *Genesis: A Commentary*. Translated by John Scullion (Minneapolis: Augsburg Pub. House, 1984).
- Whybray, R. N. *The Making of the Pentateuch: A Methodological Study* (JSOTSup 53;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Yoreh, Tzemah. "How Many Sons Did Jacob Have According to E?," *ZAW* 118 (2006), 264–68.

검색어

창세기

오경비평

하나님 이름

야웨

엘로힘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Use of Divine Names in Genesis

Hong, Koog-Pyoung, Ph.D.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Theology

Yonsei University

The use of divine names in the Pentateuch has been a primary criterion for source division in the classical documentary hypothesis. In recent decades, Pentateuchal criticism has gone through a series of upheavals, and thus the current situation is vastly different from the situation of the classical documentarians' time.

This study sets out to reexamine the use of divine names in Genesi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hanged ecology of today's Pentateuchal criticism. My chief concern is to examine the documentarian claim of E and P's notion of progressive revelation. In so doing, the divine names of the narrator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haracters. I attempt to offer a descriptive analysis of the use of divine names in Genesis, which in my

www.kci.go.kr

judgment lacks in earlier studies.

I demonstrate that there is no notable difference between the narrator and characters in the employment of divine names, which partially undermines the source-critical view of progressive revelation. In addition, I notice that each larger section in Genesis appears to have different characters in terms of their employment of divine names. I suggest that, as far as divine names are concerned, the composition of each section in Genesis is better explained in the block model than in the source model. Other minor observations on the use of divine names and epithets are listed at the end. I hope that such an attempt will provide a new ground in which critics of each camp may engage in a more productive dialogue.

Keywords

Genesis

Pentateuchal Criticism

Divine Names

Yahweh

Elohim

- 투고일: 2015년 10월 01일
- 심사일: 2015년 10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11월 06일

www.kci.go.kr